박원자의 母情佛心 34 선림사 보우 법사의 어머니



▶ 한줄 요약
지리산 산청 선림사 보우 법사는 출가자 같은 삶을 사는 수행자다. 그의 모친도 평생 수행하는 삶을 살았고, 영향을 받은 보우 법사는 대원사에서 잠시 출가 생활을 했다. 아버지의 설득으로 하산한 보우 법사는 속세에서도 수행에 매진했다.

"어찌 그리 특별한 생각을 했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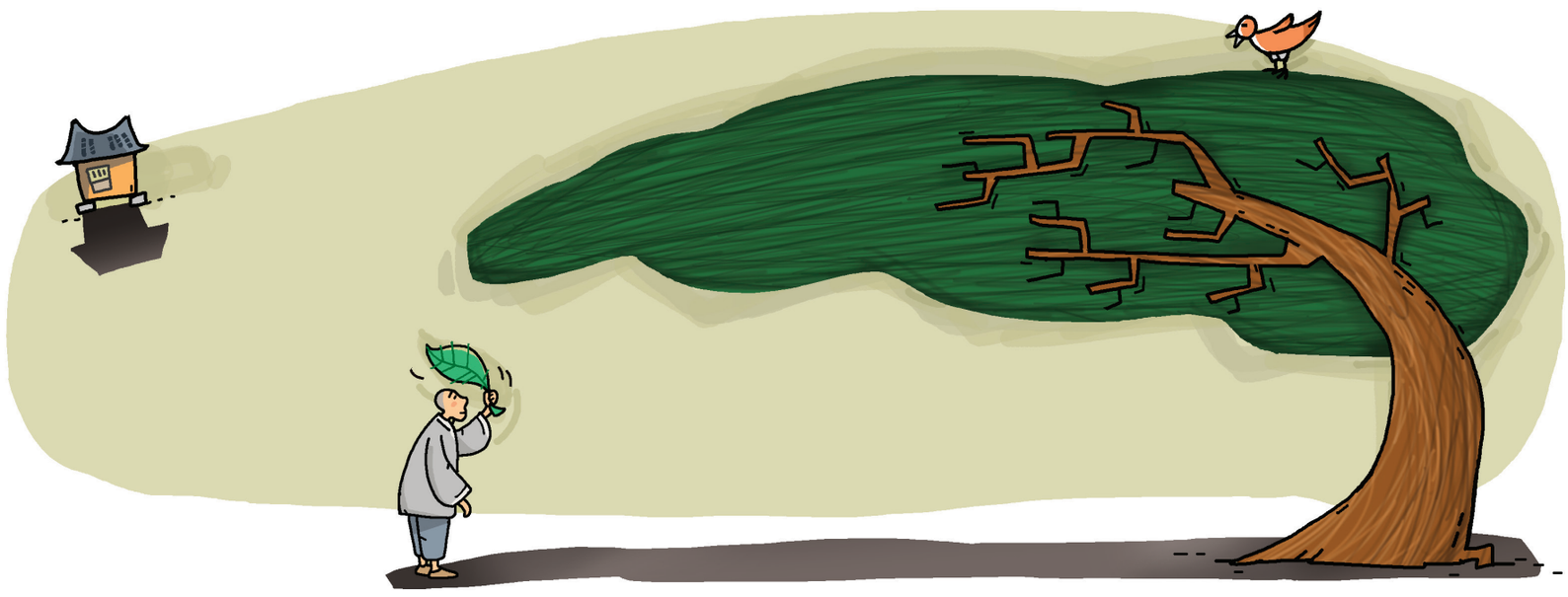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지장보살 예찬문〉을 읽으며 100일 정진 중이다. 참회하고 싶어질 때 하는 기도다. 예찬문을 보면 지장보살의 공덕을 찬탄하는 이런 대목이 나온다.

"온갖 액난 구하심은 부모와 같고 겁약한 이 숨겨줌은 숲과 같아라. 목이 마른 사람에게는 청량수 되고 굶주리는 사람에게는 과일이 되며 옷이 없는 사람에게는 의복이 되고 더위속의 사람에게는 큰 구름 되며, 가난 속의 사람에겐 여의보가 되고 공포 속의 사람에겐 의지처가 되며, 모든 중생 모든 선근 두호하시며 묘한 경계 나타내어 즐겁게 하고, 중생들의 참괴심을 더하게 하며 복과 지혜 구하는 이 만족케 하네."

마음과 중생과 부처가 하나라고 하니, 아마 이 내용을 읽고 또 읽으며 기도하다 보면 지장보살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다. 그러나 그게 어디 쉬운가. 지혜와 자비심을 닦는 깊은 수행 없이는 요원한 일이다. 이 내용을 대할 때마다 떠오르는 지장보살과 같은 분이 있다. 선림사 보우(普雨) 법사가 그 주인공이다.

지난 부처님오신날, 지리산 산청의 선림사에는 10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법석을 이루었다.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들이 함께 와서 축제처럼 하루를 즐기다 돌아갔다. 한 달에 한 번 있는 가족법회 때도 가족들이 함께 와서 법회를 보고 간다. 이 모두의 중심에 보우 법사가 있다. 새벽 2시면 일어나 절수행을 하고 절에 와 기도하고 있는 신도들과 새벽예불을 본다. 사시예불과 저녁예불을 빼놓는 법이 없다. 남녀노소 많은 사람들의 인생 상담을 귀 기울여 듣고 나서 함께 기도하고 정진하는 것으로 그들과 함께 한다.

출가자보다 더 출가자처럼 살아가는 보우 법사에게 그녀의 어머니 이야기를 듣는데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듯했다. 어머니는 늘 새벽 3시면 깨어 있었다. 청수를 떠놓고 아버지와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다. 그리고 낮에 잠시라도 누워계시는 것을 보지 못했다. 연세 들어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도 눕지를 않자 의료진들이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의심했을 정도다. 누우면 잠이 올까봐, 게으른 마음이 들까봐 평생 눕지 않은 분이다.

어머니는 십 남매를 키우며 임업을 하는 아버지를 도우며 사셨다. 일하는 분들이 다른 집에서 새경을 많이 준다고 해도 떠나지 않고 평생 함께 일했던 것은 어머니의 넉넉한 인품 때문이었다. 주인상과 인부들의 밥상이 언제나 똑 같았다.

"어머니의 눈에는 모든 사람이 다 선해보였던 것 같아요. 남의 허물을 얘기한 적이 없으세요.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 잔치가 열렸는데 새색시가 호박꽃처럼 못 생겼다고 마을 사람들이 수군대자 어머니가 '참 복스럽게 생겼던데 왜 그런 말들을 하지' 하시던 모습이 생각나요. 자식이 학교에서 상을 받아와도 자랑 한 번 하지 않으셨어요. 좋은 일이 있을 때일수록 고개를 숙이라고 하셨죠. 자식들이 뭘 잘못하면 여러 사람 앞에서 지적하지 않고 따로 불러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형제들 앞에서 자존심을 지켜주셨던 것 같아요. 답답할 정도로 말씀이 없으셨지만, 언제나 세밀히 자식들을 보고 계셨죠. 뿌리가 드러나 흙이 필요한 나무에 거름을 주어야하는 것처럼 부모도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며 자식을 키우셨어요."

"신행생활은 어떠셨나요?"

"언젠가 책상 서랍에서 공책 하나를 발견했는데, 빼곡하게 '관세음보살' 만 쓰여 있더라고요. 자식 열을 키우고 모두 대학까지 공부시켰으니 얼마나 힘이 드셨겠어요. '관세음보살' 을 쓰면서 견디셨구나 생각했죠. 어머니가 읽으시던 〈금강경〉책을 본 적이 있는데 휴지조각처럼 너덜거렸어요. 따로 불교공부를 하신 것도 아닌데, 뜻을 알고 보았겠어요? 〈금강경〉은 그 자체가 광명이니까 내면으로 그 빛이 스며들었겠죠. 힘들 때 보고 또 보면서 어려움을 삭히셨던 것 같아요."

그런 어머니가 고등학생인 딸이 출가한다고 절로 들어갔을 때 심정은 어땠을까.

보우 법사가 출가를 단행한 것은 고등학교 2학년일 때였다. 학교공부는 도무지 흥미롭지 않았다. 외워야 하는 문과 과목은 재미가 없었고, 수학은 답이 궁금하지 않았다. 입을 열어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친구들이 말할 정도로 묵언하며 지냈다. 수업 시간에 가만히 앉아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있노라면 이런 생각이 들곤 했다.

'왜 내가 여기 앉아 있나?'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학교가 아닌 것이 분명했다. 늘 산이 그리웠다. 그러다가 책방에서 〈불교성전〉과 조사어록을 사서 보게 되었다. 흥미진진했다. 네 가지 진리와 팔정도, 청정한 삶, 지혜의 성취, 보살의 일상생활 등에 밑줄을 쳐가며 읽었다. 참선에 대한 경책 외우다시피 읽었다. 잠이 오지 않았다.

'반드시 스승을 찾아 그 한 스승의 가르침에 집중하라.'

출가자 같은 삶을 사는 보우 법사
그의 모친도 평생 수행의 삶 살아
잠시 출가 생활… 父 설득에 하산
속세서 수행, 법전 스님에게 인가

드디어 출가를 결심했다. 스승을 찾아 집을 나와 해인사로 갔다. 그런데 해인사는 남자들만 받아주는 곳이었다. 쫓겨나다시피 집으로 돌아왔다가 지리산 대원사로 갔다. 비구니 스님들만 사는 대원사에서의 행자생활은 말 할 수 없이 좋았다.

"새벽이 너무 좋았어요. 다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에 곤욕을 치루기 마련인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새벽에 일어났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새벽 예불 할 시간이 부모님께서 기도하는 시간이었으니까요. 아침 일찍 예불하고 풀 뽑고 경을 읽는 시간들이 행복했어요."

"그런데 왜 하산하셨나요?"

"몇 달이 지나자 아버지가 데리러 오셨어요. 아버지는 공부가 절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며 앞으로 마을에서 네 뜻을 펼 날이 올 거라고 하셨어요. 사람은 결혼해서 아이도 낳아보고 해야 인생을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진정한 사람이 된다며 출가를 전부로 생각하지 말라고 설득하시더군요."

"보통 마음으로 절에 들어간 것이 아닐 텐데 금방 설득이 되셨나요?"

"아버지께서 제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산에 불을 지르겠다고 하시더군요.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불을 지르실 것 같았죠. 그래서 제가 내려가면 되지 산에 불은 왜 지르느냐고 하고 짐을 쌌죠. 아버지는 평소 자식들에게 '두 발을 조심하며 정도를 가라' 고 가르치신 분이에요. 대원사 스님께서 아버지를 만나 말씀을 들어보시고는 아버지가 보통 분이 아니니 아버지 말씀에 따르라고 하시더군요. 당신이 쓰던 큰 염주를 제 목에 걸어주곤 내려가라고 하셨어요."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아무 말씀 없으셨어요. 매사 분별이 없고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는 분이세요. 오로지 기도하고 일만 하신 분이죠. 어머니는 삶의 대한 모든 이치를 꿰뚫고 예지력이 뛰어났던 분이에요. 제가 어떤 길을 갈지 알고 계셨죠."

세간으로 돌아와 여전히 재미없는 고등학교 생활을 끝내고 대학에 들어갔다. 그곳에서 철학을 공부하던 남자를 만났다. 세간에서도 수행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것 같은 그 남자에게 청혼했고, 결혼해서 두 아이를 낳았다. 아이들을 키우며 '부모로부터 오기 이전의 본래면목' 을 화두로 들고 정진했다. 매일 1080배는 기본이고 3천배, 5천배, 1만 배를 수시로 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수행 체험을 하면서 고통 받는 중생들과 함께 살아갈 것을 서원했고, 훌륭한 스승을 만나 잘 공부할 수 있기를 기도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던가.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그 한 스승을 만났다.

김천 수도암에서 절 수행을 하며 백중기도를 하고 있을 때였다. 백중일에 수도암에 다니러온 해인사 큰스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동안 공부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경계들을 말씀드렸다. 묵묵히 듣고 있던 큰스님께서 입을 여셨다. "퇴설당으로 한번 오너라." "가게 되면 누구라고 하고 들어가야 합니까?" "성품을 활연히 깨치다, 활연성(豁然性)이 왔다고 일러라."

그 자리에서 법명을 준 스승은 해인사 방장과 종정으로 계시던 법전 큰스님이다. 그렇게 평생 염원이던 스승을 만나 퇴설당으로 찾아갔을 때 공부하는 방법을 일러주시고는 '다음에 올 때는 가족을 데리러 오라' 고 명하셨다. 교사인 남편, 연년생인 고등학생 남매를 데리고 갔더니, 중국의 방거사 가족 모두가 견성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그리고 발심해서 철저히 공부하면 얼마든지 방거사 가족처럼 견성할 수 있다며 가족 모두 출가하기를 권하셨다.

평범하지 않은 가족임을 알았던 것이다. 차를 마시면서 항상 진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던 가족이었다. 세속에서의 부귀영화에 대한 이야기는 꿈에도 없었다. 남편은 아내가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고 때로는 아내보다 더 열심히 마음공부를 했다. 당신에게 언제나 산 냄새가 난다며 언젠가 산으로 보내줄 테니 서두르지 말라고 했다. 아이들은 엄마가 300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1만 배 수행을 할 때,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마 곁에서 절을 하며 엄마를 응원했다.

이미 중학교 2학년 때 출가를 선언했던 딸은 그 후 호주로 유학 가 국제학을 공부하고 돌아와 출가했다. 법전 큰스님이 손수 딸의 머리를 밀어주셨다. 이례적인 일이었다. 가족들은 그날 그 자리에서 들었던 큰스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다.

"진정한 신심을 가져야 한다. 잡담하지 말고 적게 자라. 부지런해야 공부를 이룰 수 있으니, 게으르지 말고 정진해라. 자성을 깨치고 사는 진리의 길만이 영원한 행복이다."

손녀딸의 출가를 두고 할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특별한 생각을 했냐고, 너에게 꼭 맞는 길을 선택했다고 좋아하셨다. 그 옛날에 딸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 아니었을까 싶다.

"지금 85세이신데 여든둘까지 108배 절을 하셨어요. 어머니 절 하시는 모습은 모든 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정도로 진실한 모습 그대로세요. 절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한 생이 다 드러나거든요. 우리 자매들이 모이면 어머니처럼만 살 수 있다면 인생 성공이라고 말하곤 하죠."

말없는 고요함과 친절한 자비심. 이 두 가지가 보우 법사와 어머니의 공통분모가 아닐까 싶다. 모전여전 아닌가. 〈작가〉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김영숙 010-7384-1708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부처님의 마음을 빗는 불상 불단 조성 전문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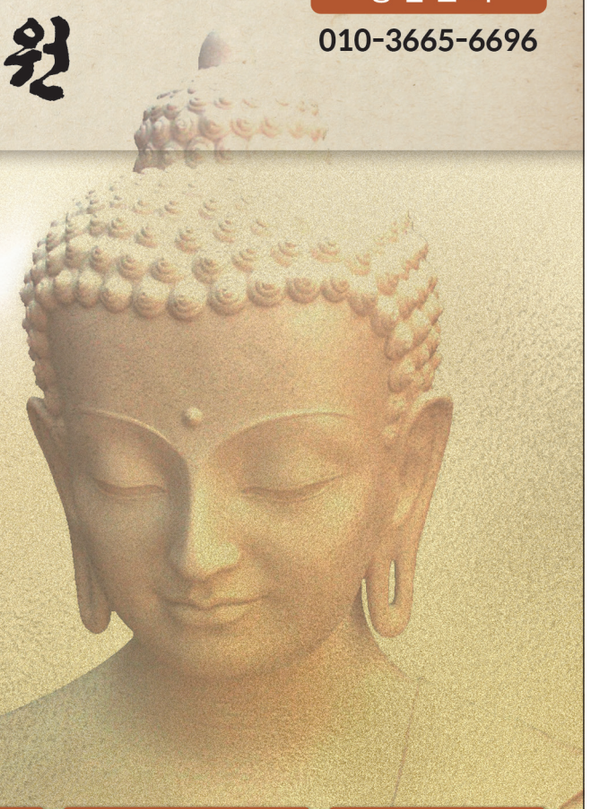
한국불상조성원

상담문의
010-3665-6696

정성과 신뢰로 짓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에서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전통불상제작 방법을 전수받아 한국 불상의 전통과 맥을 이어가고 색바램없이 영구적으로 모실 수 있는 기술적 자질을 보유하여 다양한 불상을 조성하며 전통적인 표현양식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상판매 뿐만 아니라 사찰에 관한 모든 필요한 것을 일체 컨설팅과 자문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 대표 이 인 규 합장



불단, 수미단 | 닫집, 운각 | 특수불, 동불, 목불 | 단청개금, 순금개금 | 도금, FRP, 수지
소불, 대불, 모든 탱화 | 위패제작 | 건 축 | 맞춤 조성 가능 | 사찰 관련 컨설팅 및 자문

TEL 031-536-6696 | FAX 0504-398-6696